

목포 시내버스 총파업 7일째...노사 대치로 장기화 조짐

노 "임금 2년째 동결 못 살겠다"...사 "적자 쌓여 임금인상 엄두 못내" 시민 불편 가중...무조건 퍼주기식 지원 반대·준공영제 도입 목소리

총파업 7일째를 맞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목포시만 임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 이번만큼은 "끝장을 볼란다"고 밝혀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소속 태원·유진지부(목포 시내버스노조)가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제히 전체 버스의 운행이 멈췄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사측과 임금협약을 추진하며 7.4% 임금인상과 한 달 말근 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 만근 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는 1인당 30만원을 요구했으며 결국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며 파업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의 같은 시 지역은 만근일을 12일로 낮췄으나 목포는 여전히 13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전남 동부권

은 올해 임금 3% 인상에 합의했으나 목포는 2년 전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200여만원 초반대 급여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관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버스회사의 파업으로 목포시는 임시 버스 20대를 투입해 우선 주요 노선만을 운행하고 인접 무안 군내버스의 노선 확대, 공무원들의 시민 탑승 카풀제 운영 등으로 긴급응급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목포시의 인구는 9월 기준 21만 6900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2만 5000여명이다.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불만, 나아가 목포시 교통행정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스비만 하더라도 2년 전



총파업에 들어간 목포시내버스들이 석현동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당 730~760원선이었으나 올해는 2배 이상 올랐다"며 "현재 은행 채무 94억원에 미적립된 퇴직금이 120억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목포시에 체불임금과 관련해 10억원을

신청해 의회 승인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총파업의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꼴이었으며, 목포시에서도 파업 몇 시간 전담 당국장이 다년간 것 외에는 전화도, 방문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은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 시행은 어렵다.

내년 1월초 용역발표를 거쳐 의회와 시민단체, 노조 등과 협의를 마치면 빨라야 오는 2025년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측은 이미저도 회사 입장이 빠진 상태로 2014년의 용역결과를 크게 못 벗어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측은 시내버스의 지속한 운영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이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난민버스 4대를 비상수송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안좌도에 들어설 수상 미술관 조감도.

신안 안좌도에 세계최초 수상 미술관 들어선다

추상미술 선구자 김환기 화백 고향 신촌저수지에...내년 하반기 개관

신안군 안좌도에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미술관이 들어선다.

안좌도는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로 꼽히는 화가 김환기(1913-1974)의 고향이다.

신안군이 김 화백의 고향 생가 부근에 '플로팅 뮤지엄'을 만들고 있다.

이 미술관은 안좌면 읍동리 김 화백 생가에서 400여m 떨어진 신촌저수지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수면면적 13ha에 이르는 저수지에 콘크리트 부잔교 등을 이용해 물 위에 띄운다. 1588㎡ 규모로 큐브 형태의 전시실 5개와 수장

고·사무실 등 총 7동으로 구성됐다.

물 위 전시실 등을 연결할 도교 60m도 설치한다. 물에 4면이 반사되도록 아름다운 조형미를 뽐낼 큐브 형태의 건물은 바다 위에 떠 있는 1004개 신안의 섬과 하안빛, 내모란 모양의 천일염을 모티브로 했다. 군은 24일 현재 전시실 등 건물 7동을 저수지에 진수하고 내·외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계절 온 섬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세계적으로 유명 관광지로 떠오른 안좌 퍼플섬과 함께 명물이 될 수상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걸리게 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물 위에 등등 떠 있는 미술관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최초로, 개관하면 세계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전군민 지원 100만원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11월 4일까지...적발엔 관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민 1명당 행복(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해 화제가 됐던 영광군이 이번엔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영광군은 민선8기 각종만 군수의 '전군민 행복 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 5만2290여 명에게 1인당 영광사랑상품권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당시 상품권 발행규모는 520억원대에 달했다. 이는 영광군이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우선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55)에 접수된 주민신고로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 군이 운영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

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적발 건은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노후 공동주택 44개소 안전점검 완료

지적사항 8건, 보수·보강 1건 파악

무안군이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지역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했다.

무안군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2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44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됐다. 중점 점검대상으로 구조안전과 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5개 점검항목을 분야별 시설물 안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으

로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 8건, 보수·보강 지적사항 1건을 파악했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보수·보강 사항은 관리주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했다"며 "국가안전대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점검해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2022 해남군 주민평가단이 1차 회의를 가진 뒤 명현관 해남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민선8기 공약 주민평가단 30명 선발

해남군이 민선8기 공약 이행을 군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개선점을 찾는다.

해남군은 민선 8기 들어 각계 군민들로 공약실천 계획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심사를 거쳤다. 이들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약실천 계획을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평가단

제도이해를 위한 교육과 분임 구성 및 심의안건 선정 등이 진행됐다. 심의안건은 농촌인력기반 확충, 마한역사 문화권 복원정비 사업 등 20건으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평가단은 사업별 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분임별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11월16일 열리는 최종 3차 회의는 분임 토의결과를 토대로 공약 추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주민평가단 운영은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군민 협업 과정"이라며 "내실있는 공약평가단 운영으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내년 도서개발사업 국비 194억 확보

51억 늘어...58개소 사업 추진

완도군이 내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올해보다 51억원이 늘어난 국비 194억원을 확보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3차 계획이 마무리됐으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총 사업비 1180억원)

을 수립해 추진하는 장기 계속 사업이다.

올해는 금일 척치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청산술로길 개선 등 56개소에 국비 143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도는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계속 사업 47개소를 포함, 신규 사업으로는 그동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배제돼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어항 개발,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11개소)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군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숙원도 해결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 설계 용역비를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원 해결에 투자해 예산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특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며 "앞으로도 섬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사회복지 한마음 대회 성료 여성일자리 상담 등 프로그램 진행

영암군이 최근 '제2회 영암군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 대회'를 영암실내체육관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어울림 한마음 대회는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기념식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어울림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안에서 폭력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과 ▲여성일자리 상담 ▲간이심리검사 ▲양말·목공예품 만들기 ▲추억의 뽕기놀이 ▲자문자책갈피 만들기 ▲수어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우승희(맨 오른쪽) 영암군수가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 대회에서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